

# 룡상 성당의 설계 변형 과정 연구

이 정규

( 배재대학교 토목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조교수 )

## 1.서론

이 글은 르 꼬르뷔제의 잘 알려진 룡상 성당의 창작과 변형 과정에 대한 논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비합리주의, 유기적 건축, 바로크니 하는 양식론적 해석이나, 전기적 비평, 사회 심리적 비평이나, 작가의 작품 생애 내의 시대 구분론 등, 매우 관념적인 해석에 치중하여 작품 자체의 진실한 실체를 오히려 알기 어려운 상태로 개념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재해석을 위한 필자의 룡상에 대한 일련의 작업은 직교 체계와 모듈로의 적용과 같은 합리주의의 편린과 대지와 기능이 요구하는 맥락의 중시 등 간과되었던 의미를 찾는 바 있다.

이제 그 작업의 다른 방법으로서, 작품 자체의 설계와 실현 과정, 즉 처음 대지의 방문으로부터 설계, 시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설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건축 실체의 변화와 그것이 뜻하는 바를 파악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알렌 브룩스가 편집한 'The Le Corbusier Archive'의 수많은 도면과 스케치를 연도순으로 분석하고 단계별로 정리하여, 그 탄생기를 추적하고, 작가의 참조점을 찾고, 작가의 의도를 판독하는 작업을 통해, 초기 개념이 어떻게 발전, 변형, 삭제, 추가되었으며 그

이유와 결과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 2.본론

르 꼬르뷔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건축적 과정을 기술하였다.<sup>1)</sup>

그 모험에 세 단계가 있는데

- 1)대지와의 통합.
- 2)(오랜 인큐베이션 끝의)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착상.
- 3)드로잉, 기능, 평면 그리고 디테일 해결의 차별한 수행이 그 것이다.

### 2-1.대지와의 통합

1950년 6월 4일 그는 룡상의 대지를 방문한다. 1945년부터의 라 생트 봄의 동굴 성당 계획이 추기경과 대주교들의 물이해로 거의 실현 불가능이 되어, 무신론자로 자처하던 그가 다시는 성당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내심 다짐하나, 예술 애호가인 꾸트리에 신부에 설득에

1) Jean Petit, 『Texts and Sketches for Roncham p』 1989,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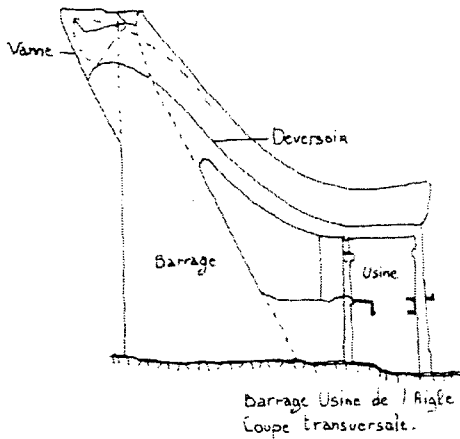


그림 1. 1948. 10

이끌린 것이다.

그가 23살인 1910년의 동방여행 중, 6주 동안이나 날마다 찾아가 매료되었던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대지와 흡사한 롱샹의 고지를 방문하고는 ‘땅과 지평선이 서로 침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3시간을 보내고 4개의 지평선을 정확하게 그린다.<sup>2)</sup>

최초의 스케치는 1950년 5월 20일에 이루어 지는데 이는 롱샹대지의 방문이 있기

2) Le Corbusier, 『Ronchamp. les carnets de la recherche patiente』 (1957)  
 금평돌역 『롱샹』 (1994) p6, pp88~89참조.

그는 위 책 서문에서 파르테논에 대한 현사를 인용함으로써 이 건축이 롱샹 창조에 원천임을 노정하고 있다. “아크로폴리스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애썼던 많은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중의 ‘진짜’ 힘과 우리 예술 중의 ‘진짜’ 예술에 관해 고민하던 시간이었다. 건축을 실제로 행하는 실무자들은 어떤 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머리 속이 텅 비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죽은 재료에 살아 있는 형태를 부여하는 일에 직면할 때 회의로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침묵하는 돌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폐허 속에 퍼져 있는 고독감에 의해 낙담할 것이다. 아크로폴리스를 떠날 때면 언제나, 내 자신이 언제나가 실행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어깨를 떨구곤 했다. 파르테논은 하나의 드라마이다...”(『아크로폴리스에 관하여』, 기행서, 1910)

전이다. 따라서 롱샹을 방문하기전 수 개월 동안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했음이 틀림없다.<sup>3)</sup> 롱샹 성당은 건물의 경관과의 통합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중시 하였으며 “롱샹 성당은 대지와 의 접촉이요, 장소의 상황, 장소의 웅변, 장소에 대한 연설이다.” 라고 하였다.<sup>4)</sup>

## 2-2. 디자인의 원천

### 1) 유추

1946년 롱아일랜드에서 손에 넣었던 게 껍질은 ‘시적 반응의 대상물’이 되어 롱샹의 지붕이 되었다.<sup>5)</sup>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공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가 일찍 기계주의 미학에서 매료되었던 비행기의 날개에서 유추하였다<sup>6)</sup>. 또한 탑으로부터의 빛의 도입은 익히 알려진 대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빌라나 지중해 연안의 풍토 건축으로부터의 유추이며, 남동측 지붕의 솟아오른 형태는 댐을 유추하였고<sup>7)</sup> 물의 처리라는 점에서는 기능의 유추를 도입한 것이었다..<그림 1>

### 2) 프로그램

롱샹 언덕은 중세기 이래 많은 전쟁의 피해를 받았으나 성모마리아 상은 살아남아 신성한 성물로 여겨졌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순례하는 많은 신자를 위한 외부 전례 공간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부공간이 그에게 요구한 크라이언트의 기능이였다. 그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카톨릭의 의식을 조사하고 성직자와

3) Allen Brooks(edit), 『The Le Corbusier Archive』 중 Daniele Pauly, 『The Chapel of Ronchamp as an Example of Le Corbusier's Creative Process』 p.xiii.

4) 1)과 같은 책, P.43  
 5) 2)와 같은 책 p.89.  
 6) 3)과 같은 책, p.xv.  
 7) 3)과 같은 책 p.xvii.

대화하였으며 룡상 대지에 역사에 관한 전기의 연구에 몰두하였다.<sup>8)</sup>

### 3) 제한조건

언덕 꼭대기까지는 연결되는 도로가 없었으므로 건설 자재의 하중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2차 대전 때, 재건되기 직전의 네오 고딕 성당은 파괴되었다. 그 폐허에서 얻은 돌로 벽을 채우는데 사용하도록 요구되었고, 가능한 가벼운 재료가 사용되어야 했다. 또한 고지대로서 물의 공급이 어려워 지붕의 빗물을 모아 공급하는 방식이 요구되었다.<sup>9)</sup>

### 2-3. 인큐베이션 단계

르 꼬르뷔제의 창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큐베이션 단계'는 건축에서처럼 회화에서도 적용되는 항수 중의 하나이다.

르 꼬르뷔제는 「룡상 성당의 글과 스케치」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설계 착상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을 의뢰 받았을 때 나는 몇 달 동안은 일체의 스케치도 하지 않고 그것을 내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가두어 놓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데 문제의 요소들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뜨고, 끓고, 발효하도록 내버려두는 상자와 같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 그 안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연필이나 목탄, 색연필을 들고 종이 위에 그린다.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다.”<sup>10)</sup>

이 단계 동안에 아무 것도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어진 문제들을 마스터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과 연구 작업의 일부는 수행된다.

룡상의 경우, 건축가는 대지에 대한 정보, 그

장소와 관련된 순례의 전통, 성모에 대한 신심 등의 자료를 모으고, 카톨릭 전례를 연구하며, 룡상 대지에 대한 설명의 주석을 단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정보와 기록을 모은다. 그리고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정리되고, 분석되고, 흡수되며, 아마 재 사용되고, 때로는 잊혀진다. 오직 그때만 아이디어가 명확해진다. 그의 무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온 원천에 의해 풍성해지면 아이디어는 떠오르고 드로잉에 의해 뚜렷이 표명된다.<sup>11)</sup>

초기 스케치는 대지의 방문 전후에 시작된다. 최초의 스케치는 1950년 5월 20일 과거 여행시의 아크로폴리스 원경과 매우 흡사한 모습의 룡상 원경을 스케치한 것이다.

르 꼬르뷔제의 초기 스케치는 창조의 첫 단계로서 대지조건과 기능에 따른 네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곡선은 넓은 풍경에 열려져 순례자를 맞이 위해 계획되었고, 두 개의 직선은 그들을 재결합하고 형상을 마감한다.<sup>12)</sup>

여기에 인공대지가 남쪽, 북쪽의 마을로부터의 진입로에 밀착하여 시작된 외부 전례공간으로 계획되고, 북측으로 종탑 구조물이 격자로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2>

1950년 6월 6일의 스케치에는 진입 방향이 좀더 분명하게 화살표로 표시되고, 건물에 축의 개념이 표현되어 아일과 제대의 중앙 축 좌우로 좌석이 배치되고, 소 성당 앞에도 좌석이 배치됨을 볼 수 있다.<그림 3>

역시 같은 시기의 평면과 형태 스케치는 몇 개의 선으로 최초 아이디어를 명확히 보여주며 이 기본적인 틀은 최종안까지 유지된다. 남동쪽은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며 만나고 북서쪽은 둔각으로 만난다. 개구부와 제대, 가구들이 간단한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에게 형태의 핵심은 남동이 만나는 부분이다. 남측 지붕은 동측 지붕에 비해 약하나 답

8) 3)과 같은 책 p.xviii.

9) 『Oeuvre Completes 1952~1954』 도서출판 보원 (1991) p.67 참조.

10) 3)와 같은 책, p.xiv.

11) 김정신, 『룡상 성당의 분석을 통해 본 르 꼬르뷔제의 디자인 원천과 설계과정』 1999. 단국대학교 논문집. p.399

12) 3)과 같은 책 p.xiv.

의 매스가 균형을 잡고 있다. <그림 11> 각 입면을 보면 탑의 높이가 거의 같음을 보이고 지붕의 입면 두께가 얇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

## 2-4. 문제 해결과 수행단계

### 1) 초기 안

초기 안은 초기 스케치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본 안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중간에 여러 변화를 거쳐 1950년 11월 20일 1단계 계획안으로 일단 완성된다.

1950년 6월 8일 제작한 배치도는 스케치를 바탕으로 스케일을 정확히 한 도면으로, 기존 건물(a를 비롯한)과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a 건물을 시야에서 가릴 정도 거리로 근접하게 배치하여 남측 진입로 방향이 출입구에 직통 연결되어 있고, 북측 진입로에서는 좌회전하여 완만한 곡선을 따라 비스듬히 배치된 종각사이를 따라 부출입구로 진입하도록 되어있다.

인공대지는 역시 진입로에 맞닿은 곳에서 시작하여 외부계단을 중심으로 넓은 1:2비율의 장방형의 외부미사공간을 조성한다.

축을 중심으로 외부 미사 계단은 북측까지 거리만큼 남측이 깊게 뻗어 있어 남쪽 벽은 큰 곡률을 가지고 남동쪽으로 구부러진다.

서쪽 벽은 a와 평행한 직선을 하고 남쪽 탑은 직사각형에 반원을 첨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좌석은 사다리꼴로 제대를 향해 커지고 남측 좌석은 벽에 붙으며 북측은 주위에 복도를 가지며 축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림 4>

이때부터 평면 구성의 발전이 시작되는데 평면의 구조 시스템이 5-베이, 7-베이, 9-베이 등 여러 대안의 검토가 있게 된다. (7115, 7275, 7280 참조)

### 2) 1단계 계획안

1950년 11월 22일에 변경한 배치도를 보면 건물은 기존 건물 a에서 더 떨어져 등고선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오고 전체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약간 회전한다. 이에 따라 진입로의 방향이 출입구와 연장되지 않고 탑을 향하며, 북측은 초기안보다 깊은 좌회전의 꺾임 다음에 이제는 직교하는 종탑 격자 사이로 진입하게 된다.

인공대지는 진입로에서 멀리 격리되어 시작된다. <그림 5>

평면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내부 좌석이 남측 벽에 접한 좌석만 남고 모두 없어지는 점인데, 소성당 앞은 좁은 폭과 고해소 기능 때문이라 여겨지며, 중앙은 초기 안에서 아일 축선에 있던 제대가 성가대 석의 내외부 양분으로 인해 제단 중앙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그 앞에 아일을 두어 결과적으로 세 줄의 좌석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순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서 미사를 보도록 한 것이다.

고해소가 소성당 주변으로 세 군데 생기고 출입구는 방풍실에서 구십도 꺾여 들어오도록 하였다. 북서 측의 벽, 제단의 선은 직선이 변화하여 곡선화 한다. 남동 벽은 초기안보다 덜 뻗어 나간다. 외부 설교대가 기둥을 감싼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속실들은 내부 직선계단으로 지붕 속까지 동선이 연결된다. 3층 회의실 밖에는 매스 안의 로지아가 생기고 이는 북측 인공대지에 열려진다. <그림 12>

평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수조의 위치이다. 룡상의 대지는 고지대이므로 빗물을 모아서 위생 설비에 물을 공급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에서 빗물을 모아 수조를 통하여 부속건물에 지중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북측 지붕 중앙에 물흡통을 배치하였으므로, 당연히 남고북저이면서 동서가 높고 중앙부가 낮은 지붕을 하게 된다. <그림 18> 그리고 이 위치는 초기안보다 동쪽 낮은 곳으로 배치가 이동했는데 불구하고 배수 구배에는 문제없는 충분히 높은 지점이었다.

그런데 이 물흡통의 위치에 따라 지붕 단면뿐 아니라 전체 형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데, 특히 북측 입면의 형태는 지붕 선이 흠통을 저점으로 동서 측으로 점점 높아지고, 3층 회회실 앞 로지아와 서측 탑 쪽 정방형 공허부의 윤곽과 그림자로서 생기는 탑의 수직 매스와의 조합으로 남동 측과는 다른 독자적 형태를 가진다. 더구나 종탑의 격자 공간이 이와 조합되면 강력한 진입 축 형성과 함께 더 조직적인 형태 의미를 갖추게 됐을 것이다.

또한 초기 스케치와 달리 남측 탑과 북측은 분명한 높이 차이를 보인다.<그림23>

지붕 단면은 그 형태가 비행기 날개 단면과 흡사하여 끝 부분을 비교적 부드럽게 처리했는데, 내부 구조의 표현이 생략돼 있음을 보면 아직 구조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종탑은 격자 한 스펠 정도 격리되어 있으나, 본체의 탑간의 높이 관계를 대칭으로 반복하며 본체의 육중한 조적조 매스감과 달리 기하학적 투명 공간의 대조를 보인다.<그림17> 인공 대지의 건축 형태는 남동 벽과 지붕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림 22>

### 3) 2단계 계획안

1951년 1월, 카톨릭 성 예술 위원회에의 기본 계획도면의 제출이 있고 난 후<sup>13)</sup> 계획안은 많은 변화를 하게 되어 1953년 봄 착공 때까지 계속된다.

1951년 1월 25일 물흠통은 북서 측 타워로 위치를 잠시 변경한 모습을 보이고 남측 벽은 깊이가 얕아지며 고해소가 출입구 정면에 나타나고 부속실은 횡단 계단으로 바뀐다.<그림13>

이 조정 과정의 중간 마무리는 1951년 2월 1일 도면으로 구체화된다. 기본적 변화는 초기 안에서 보인 축이 중앙으로 위치하여 개념이 명확해진 것이다. 남벽은 더 얕아지고 북서 벽은 더 풍부한 곡선이 된다. 고해소는 서측의 두 군데 중 하나가 출입구 정면으로 옮겨진다. 방풍실은 전과 비슷하나 이중문이 직선으로 연

결된다. 외부 계단에 탑과 유사한 창고가 생긴다.<그림14>

1951년 3월 물흠통은 서쪽으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지붕의 단면형태가 달라지고 따라서 입면도 달라진다. 즉 그 동안 남고북저, 동서고 중앙저의 지붕이 방향을 90도 틀어 동고서저, 남고 북저, 중앙저의 종방향 물의 흐름으로 바뀐다. 단면의 지붕은 이제 동서로는 직선, 남북으로는 오목한 곡면을 이룬다. 단면 형태는 전 단계보다 직선화하고 끝이 예리해진다.<그림 19>

이에 따라 북과 서의 입면 형태는 매우 달라진다. 북측 입면선, 특히 지붕 선은 1차 안과 달리 직선 화하고, 횡장의 3층 로지아가 짧아지고, 탑과 옆벽 사이에 분절 줄 눈이 생겨 수직성을 분명히 했다. 서측은 물흠통으로 급히 낮아지고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된다. 전체 탑 꼭대기의 곡면과 수직면의 프로필은 보다 더 날카로워 지고 있다.<그림24>

이 변경은 배치의 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최종 배치는 1단계 계획안보다 훨씬 동쪽으로 내려옴으로서 서측 끝이 가장 높은 등고선에 자리잡게 된 때문이었다.

1951년 10월 17일의 도면에서는 그 동안 발전되어온 구조 시스템이 확정되어 7-베이로 하고 지붕의 경사를 표현한다.<그림15>

### 4) 확정 계획안

1953년 4월 16일의 평면은 현재 시공 상태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전 단계와 달라진 점은 우선 물흠통의 위치를 축선에 표시하여 평면구조의 축성을 명확히 보이는 것이다. 다음, 남측 벽이 출입구 벽 깊이로 시작하여 점차 얕아지는 경사를 보이는 점이다. 이 경사를 따라 좌석이 더 급한 평행 사변형이 되고 좌석 뒤의 벽은 없어져 개방성이 커진다. 방풍실이 없어지고 하나의 큰 회전문이 내외를 가른다. <그림16>

출입구 옆의 고해소가 없어지고 대신 성수반

13) 3)과 같은 책 p.xvi.

의 위치가 이 쪽으로 이동한다. 외부 계단의 창고 형태가 더 뾰족해지고 그 안을 관통한 기둥이 지붕을 지지한다. 1단계와 달리 외부 설교대가 기둥과 분리되고 직선화 한다. 남동벽 끝 면이 칼끝처럼 예각을 이루며 지붕 단면은 전단계보다 유연한 곡선을 지향한다.<그림18>

이 도면이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서측 고해소로 실체는 2조, 즉 4칸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 계단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변경 끝에 외부에서 2,3층으로 직접 들어 갈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북측 형태에서 계단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 외 전 단계와 다른 점은 외부 계단 위의 지붕이 흰 벽과 분절되어 콘크리트로 바뀌고 끝이 뾰족해지며 작은 물홈통이 추가되고, 로지아 윗 선이 경사져 탑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그의 1단계 계획안에 대한 미련을 엿보게 된다.<그림25>

### 5) 배치 계획의 변화

배치 계획은 초기서부터 착공 후에까지 계속 변화를 가지며 많은 신경을 몰두하게 된다.

1952년 10월 31일의 배치도는 초기안보다 동쪽 낮은 등고선으로 이동했던 1단계 계획안보다도 훨씬 남동쪽으로 배치가 내려간 것이다. 이로써 정서쪽 가장 높은 등고선 상에 수조가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순례자 호스텔, 관리인의 집과 본 건물 내 사무실로의 위생배관은 7222에서 보인다)

이 배치의 변경으로 인해 남북의 진입로로 들어오면 기존 건물과 서쪽 벽 사이에 넓은 외부공간이 생긴다. 그 동안 내부공간으로 각자 출입하던 남북 측 진입동선은 이제 외부에서 서로 만나 건물 전체를 휘돌아 가는 양상을 보인다.<그림6>

그런데, 1952년 12월 15일의 배치도는<그림7> 동쪽 부분만으로 축소된 인공대지의 계속적 탐구와 함께 피라미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1953년 봄 착공 후 1954년6월 2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경과 산책로로 구분된 외부 전례공간도 계획하는 등, <그림8> 배치의 고심을 거듭하게 된다. 동시에 관리인의 집, 순례자의 집, 포도주 저장고 등의 부속건물이 출현하고 있고,<sup>14)</sup> 본 건물로 사용하다 남은 돌로 세울 피라미드의 스케치는 이후 54년 10월 15일 까지 계속되어 마침내 현실화 한 대신, 인공대지는 도면에서 사라지고 끝내 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탑은 여전히 도면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이도 결국 시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1954년 5월 2일 장식물의 그림에 삽입되는 건물외부 스케치에는 종탑과 인공대지가 존재해 있는 것을 볼 때, 르 꼬르뷔제의 이들 외부 요소에 대한 강한 집착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9>( 피라미드는 이 스케치에서 보이지 않는다.)

### 2-5. 변형 과정과 의미

4년 이상의 끈질긴 계획 과정을 보면 많은 수정과 발전 과정이 반복되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1) 배치는 서쪽의 기존 건물에서 점점 격리되어 동북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그림10>에 따라 건물 서측 끝이 가장 높은 등고선에 자리잡는다. 이는 수조의 레벨 문제와 더불어 남과 북의 마을로부터의 진입 방향이 건물 출입구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측 외부공간에서 두 동선이 서로 만나게됨을 의미한다.(남측 탑의 평면 벽선이 큰 곡선을 이루게 변화한 것도 이에 대응한 탓이다)

전체적으로 대지의 한 끝에 자리하던 건물이 가운데로 이동한 꼴로 아크로폴리스에서 파르테논이 비교적 대지의 코너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면 중앙에 독립적으로 서게 된 것이다. 이 결과 건물의 4방향의 동선과 형태가 고루

14) 순례자의 집은 52-12-4, 관리자의 집은 52-12-17, 포도주 창고는 59-5-20부터 제작 날짜가 있다.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 예술 위원회의 심의 후에 이 변화가 일어나므로, 작가가 기존 건물을 시야에서 가리려 했던데 반하여 이들을 잔존시키려한 클라이언트의 의사가 주된 요인<sup>15)</sup>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건물은 완공 후 철거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치의 동진으로 말미암아 더 축소된 동측 외부 전례 공간은 예산 문제와 더불어 인공 대지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본 건물과 결합하지 못한 이 외부 공간은 작가가 의도와는 다르게 느슨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그 자신의 주장으로 피라미드를 대신 건설하게 된다.<sup>16)</sup> 또한 순례자 호스텔(지붕의 경사가 본건물을 향하여 낮아진다)과 포도주 창고 위의 흙무더기(외부 미사 때 시각의 끝 지점)가 이의 대체물로 작용하게 된다.

2)형태는 배치의 이동에 따라 대지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 각 입면의 독자성을 요구하였고, 홈통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변화로 인하여 분절이 없었던 북쪽과 서쪽 입면이 각기 분명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특히 종탑이 없어진 북측은 더 세분화된 입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서측은 초기안과 달리 독자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 남측은 초기의 흩뿌려놓은 듯한 작은 창들이 빛의 다양한 투입을 고려한 사다리꼴의 비교적 정형화된 창의 구성을 보여준다. 동측 입면은 초기의 무대와 같은 성격을 유지하나 북측면의 지붕일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하여서 동측 형태에 편입시키며 북측과 분절한다.

세 탑은 그 높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이는 디자인의 원천으로서 '빛 우물'의 분위기를 조성당 각기 달리하는 효과를 준다.

공간과 형태를 이루는 선들은 곡선과 경사를 더 심화하여 상호 긴장감을 더 하는 쪽으로 발전하였고, 예각은 더 날카롭게, 부드러운 것은 더 부드럽게 변화시켰다

3)평면은 프로그램에 적용한 초기 스케치의 개념을 기본으로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축에 의한 대칭적 균형을 잡아나가는 한편, 고해소, 부속실, 벽, 외부 계단 등의 문제 해결의 차분한 수행으로, 기능과 동선은 좀더 단순화 개방화 된다.

구조 체계는 모듈을 가지며 지붕 경사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리된다..

남측벽은 초기 개념을 심화하여 더욱 두꺼워져 빛의 깊이를 더하며 동시에 야외 미사가 열릴 때 종교 성물을 그 니치 안에 수납하는 목적도 있다.<sup>17)</sup>

4)지붕은 초기 안에서는 동서 간 중앙부가 낮아서 소성당의 기능, 즉 기도와 명상의 장소와 동측 계단, 즉 많은 순례자의 종교 의식 공간을 분리하려는 의미가 있었으나,<sup>18)</sup> 요구 조건으로서의 홈통의 위치가 바뀐 후는 서쪽으로부터 '파도치듯' 동쪽으로 올라가는 일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출입문, 고해소와 좌석 뒤 벽이 없어지는 개방성을 향하고 있으며, 종탑과 수조가 변경된 위치에 인접한 부속실은 내부 계단의 복잡성에서 외부 계단 설치의 단순성을 향하고 있다.

단면은 디자인 원천으로서의 비행기 날개를 유지하나 그 선은 끝이 날카로워지고 전체적으로 직선에서 유연한 곡선으로 변화를 이룬다. 바닥은 등고선을 그대로 따르나 내 외부 계단을 향해서 경사져 올라가는 것은 끝까지 변함 이 없다.

### 3.결론

위와 같은 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①그는 룡상 고원에 인공대지를 올림으로써 아크로폴리스를 지향하였으나 결국

15) 3)과 같은 책 p.xvi.

16) 9)와 같은 책 p68.

17) 3)과 같은 책 p.xviii.

18) 3)과 같은 책 p.xvi.

하지 못했다. 또한 종탑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대지 맥락에 따른 복합 건물군으로서의 룡상이 아닌, 자기 중심적 건축이 되었다. 이 미완의 의도를 무시한 결과 많은 해석자들은 룡상의 독립적 형태에만 주로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 ②수조의 위치 변경에 따라 지붕의 경사 방향이 바뀌고 이에 따라 외부형태, 내부 단면이 바뀌었으나, 이 변화를 발판으로 하여 더욱 자체 논리를 가지도록 건축요소들을 상호 연결,구성하였다.
- ③그는 오랜 관찰과 여행을 통해 잠복한 건축의 기억을 문득 끄집어내어 지붕과 탑, 남측벽을 만들었으나 그 구체화 과정은 매우 과학적, 합리적인 것이었으며 건축 실체는 초기 개념을 정제화하는 방향을 가진다.
- ④순례자 전례 공간 기능의 성격을 숙지한 그는 내, 외부 공간과 형태를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작업으로 긴장화, 세련화 하였다. 도중에 건축주의 의사나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도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바탕에서 자기 논리를 구축하여 창조적 분투로서 천재의 작품다운 예술성을 창출한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1998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한 연구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 문헌

- 1. Le Corbusier, 『Ronchamp, les carnet de la recherche patiente』 (1957)

- 금 평돌, 『룡상』 (1994), 시공문화사
- 2. Allen Brooks(edit.), 『The Le Corbusier Archive』 (1983), Garland Publishing, Inc.
- 3. 『Oeuvre Completes 1952-1954』  
『Le Corbusier』, 1991, 도서출판 보원
- 4. Jean Petit, 『Texts and Sketches for Ronchamp』. 1989. Association oeuvre de Notre-Dame du Haut.
- 5. 김정신, 『룡상 성당의 분석을 통해 본 꼬르뷔제의 디자인 원천과 설계과정』. 1999.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 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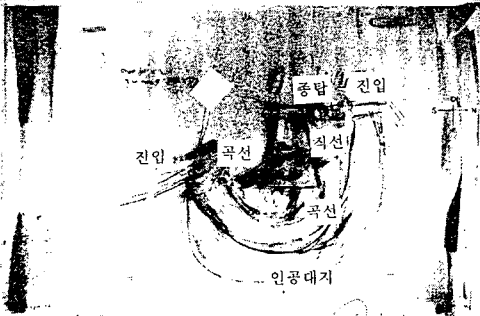


그림2 1950.6.6, 7470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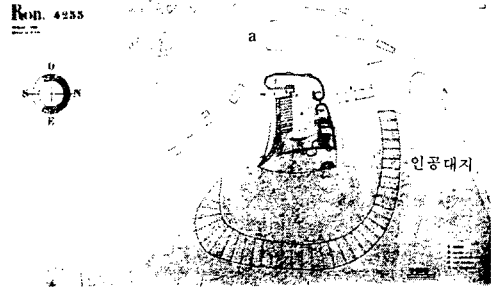


그림5 1950.11.12, 7105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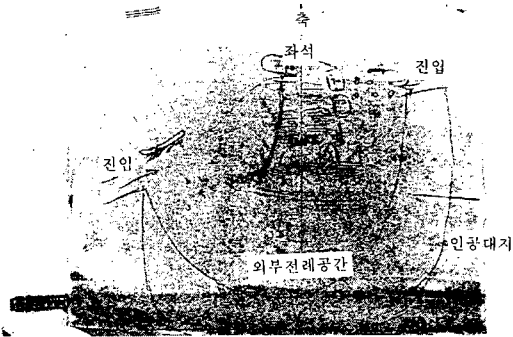


그림3 1950.6.6. 7311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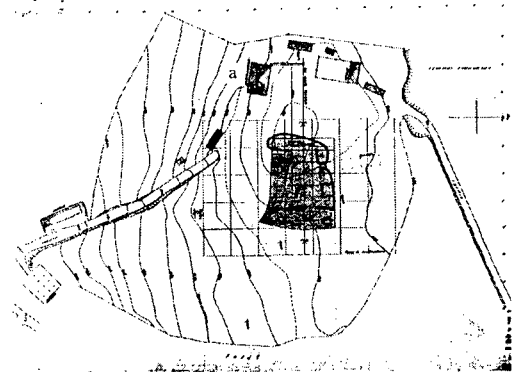


그림6 1952.10.31, 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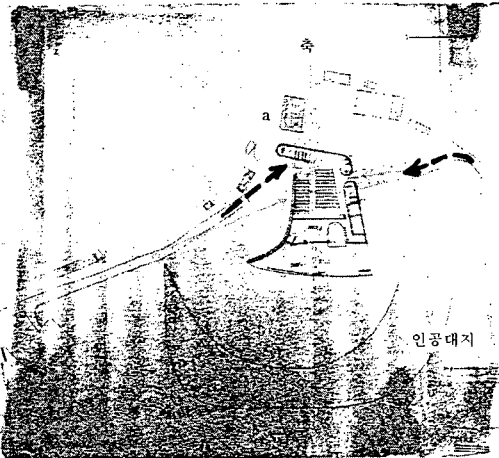


그림4 1950.6.8 7462 p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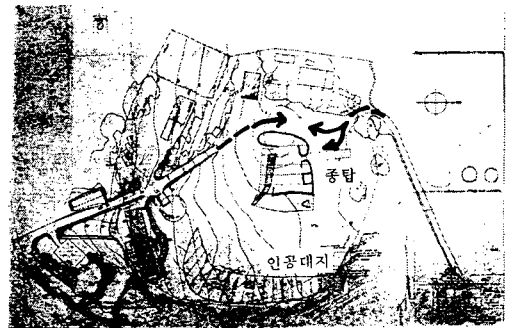


그림7 1952.12.15, 7480

배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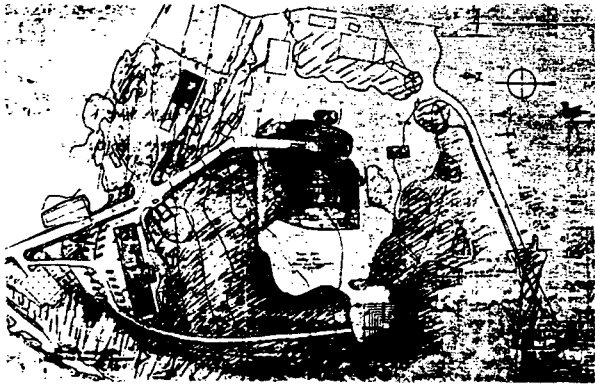


그림8 52-12-15, 7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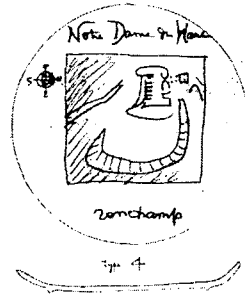


그림9 1954.5.2, 7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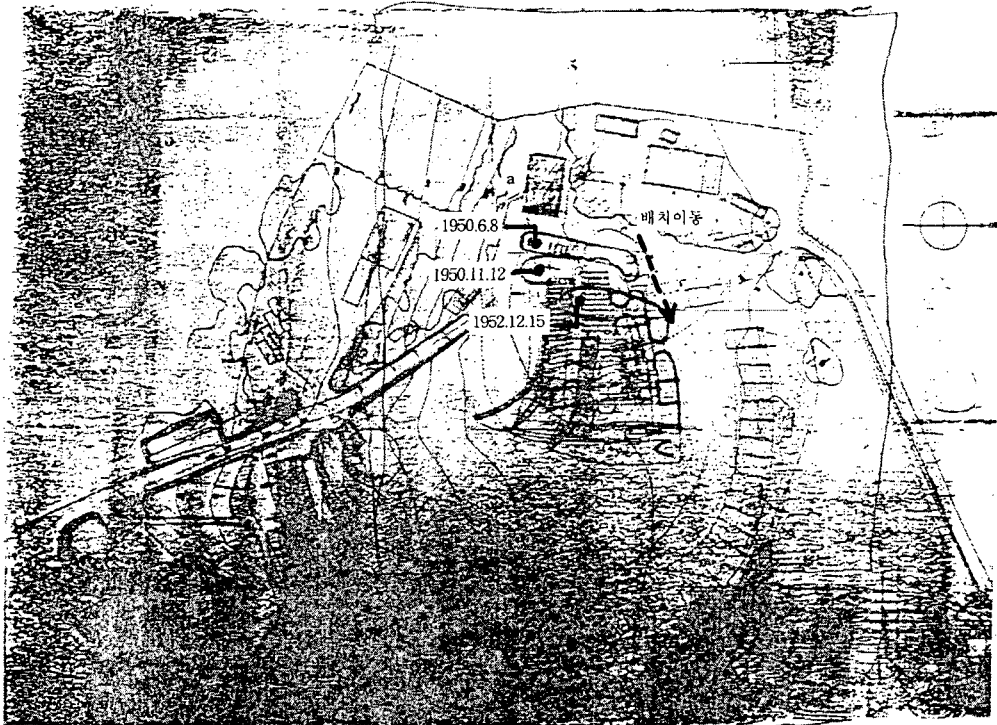


그림10 배치의 변화 (겹쳐 보임)

배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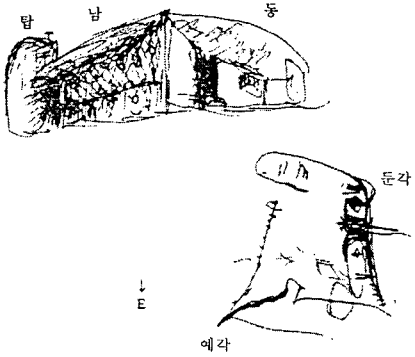


그림11 스케치북 E18,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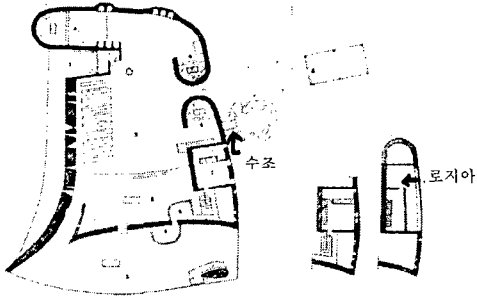


그림12 1950.11.12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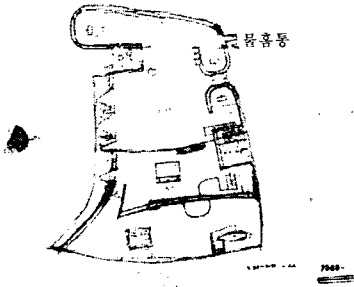


그림13 1951.1.25, 7369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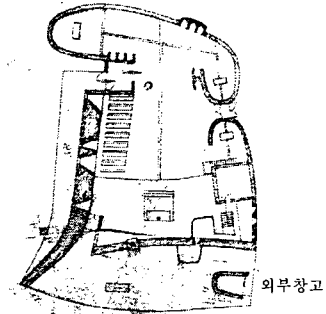


그림14 1951.2.1, 7471 p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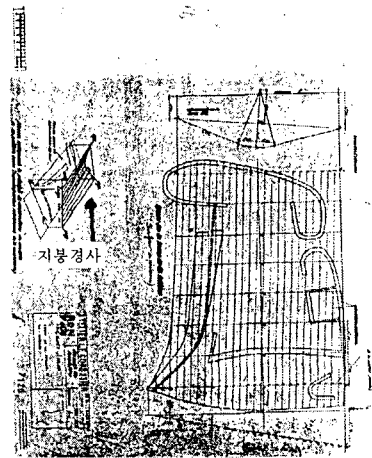


그림15 1951.10.17, 7120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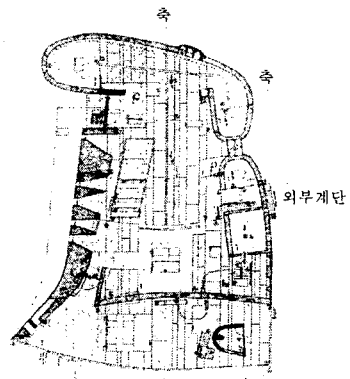


그림16 1953.4.16, 7169 p26

평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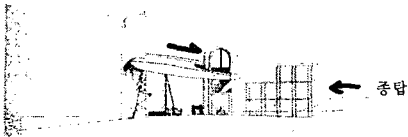


그림17 1950.11.22, 7108 p7



그림18 1950.11.22, 7107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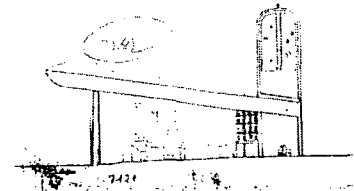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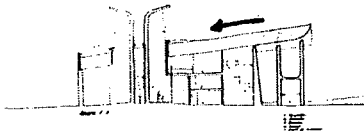


그림19 7121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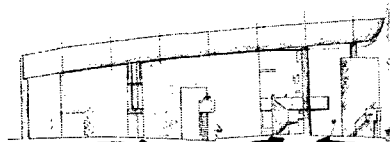


그림20 7467 p157

단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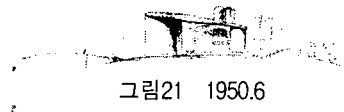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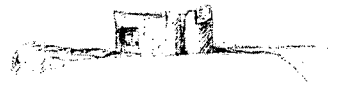


그림21 1950.6



그림22 1950.11.22, 7111



그림23 1950.11.22, 7112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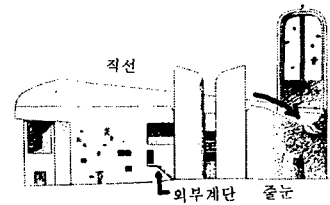


그림24 1951.3, 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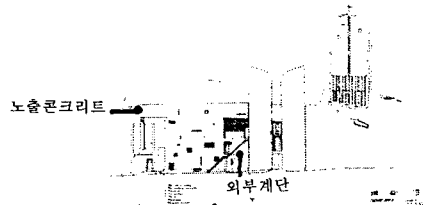


그림25 1954.6.23, 7185 p32

입면의 변화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in Design Process of Ronchamp Chapel

Lee, Jeong-Kyu

(Assistant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meanings in the creative process of Ronchamp chapel by analyzing the drawings of the site, plan, section and elevation in chronological order. The origins of his architectural creation are identifying with the site(memories of Acropolis), analogies of crab shell, air plane wing and hydraulic dams. The architect informed himself about the site ,the tradition of pilgrimage associated with the place, and its devotion to the Holy Virgin; he looked into the rituals of the Catholic religion, spoke with ecclesiastics; he studied and annotated a monograph devoted to the site of Ronchamp. Also ,the plan required that it be possible to collect rainwater, since such was rare on the hill.

In the first design phase, overall conception of building was carried out in the sketches and drawings from June 1950 to November 1950. The second phase in the elaboration of the project was from January 1951(at which time preliminary project was presented to the Commission of Holy Art) to April 1953. The modifications made were in response to opinions expressed by the patrons. The building moved to east and gargoyle moved to west, then, the elevations of north and west were changed.

He designed the artificial land and bell tower from the first phase even after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he wanted them to be built .But they were not constructed, so the outer space for rituals of religion had no tension.

I concluded that Le Corbusier had gifted ability and efforts to create spontaneous birth(after incubation) of the whole work, and the execution of drawings itself. He devoted himself to accomplish the project in spite of the change in situation or by clients.